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2월 28일(주일) 제1088호



사진은 차세대 패션집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선생님

3월 2일, 9일 차세대 교사 위한 부흥집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오후 7시 30분

차세대사역본부가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선생님'을 주제로 3월 2일과 9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를 위한 집회

다. 차세대들에게 올바르게, 선한 영성을 전수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3월 2일에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3월 9일에는 양금희 교수(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가 강의한다. 양 교수는 어린이와 청소년

년의 기독교 영성 및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다. 영유아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기독교 교육전문가다.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성경이야기를 전해주는 '센싱 더 스토리(Sensing The Story)'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속 교사나 부모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겐 선한 영성을 전수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고민하는 자리에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사역본부는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셋째 주일에 교사, 부모,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지난 21일 첫 예배를 드렸다. 3월 소

년부, 4월 유년부, 5월 중등부, 6월 고등부 교사,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10면>

3월 3일부터는 '자녀를 위한 목요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한다. 오전 10시 30분에 서빙고 누리홀, 양재 꿈터, 도곡 충성홀, 일산, 서대문, 대학로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215-3521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 개최

3월 5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

3월 5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에서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를 개최한다.

목양대회는 공동체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교역자, 장로, 권사, 순장, 다락방장, 대학청년부 MC, 차세대 코치(총무) 등 리더십들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이번 목양대회에서는 다락방장, 순장, 대학청년부 MC, 차세대 코치 등 700여 명의 신입리더십

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상반기에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가 3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난주간 심야예배(3월 21~25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5월 18~19일), 창조신앙교육 컨퍼런스(5월 27~28일), 마리아 행전(6월 22~24일)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인천 예배처소 이전, 강동 창립 8주년

인천 온누리교회가 오늘(28일) 예배처소를 이전한다. 앞으로 인천 온누리교회는 연수구 송도동 프리스페이스(송도동 8-10)와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에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예배는 송도 컨벤시아 1층, 주중예배는 프리스페이스 6층에서 드린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오늘 창립 8주년이다. 오후 2시 본당에서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예배를 드린다. 푸른나무교회 박수광 목사가 설교하고, 송정미 사모가 찬양콘서트를 연다. 11층 꿈아이홀에서는 한철 행사가 열린다.

문의: 인천 032-437-9686

강동 02-475-9686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인천 주일예배

예배	부서	시간	장소
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컨벤시아 1층 113, 114호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컨벤시아 1층 113호
차세대	영아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2호
	유치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7호
	유년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9호
	초등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6호
	중등부	오전 11시	프리스페이스 6층
대학청년	고등부	오전 9시	프리스페이스 6층
	Web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장애인예배	사랑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04호
국제예배	헤브라키즈	오후 2시	컨벤시아 1층 109호
	몽골어예배	오후 2시	스마트벨리

인천 주중예배

예배	요일	시간	장소
새벽예배	월~토요일	오전 5시 20분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수요일	오후 7시 40분	프리스페이스 6층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노래하는 가수가 있다. CCM 가수 지미선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다. 그녀가 부른 찬양 ‘할렐루야’는 일반 대중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녀는 양재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블레싱 콰이어’를 7년째 섬기고 있다. 찬양집회, 간증집회, 청소년 수련회 등에서도 찬양하고 있다. 그녀는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가수다.

찬양 ‘할렐루야’ 원곡자 CCM 가수 지미선

“주의 뜻 전하는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꿈이 늦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새 옷 입히시고 세워주셨어요. 절대 포기 하지마세요. 당신을 순금같이 단련시켜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에 떨어야 했다. 급식비가 밀리고 용돈도 없었다. 가난한 현실을 피하려고 친구들과 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다. 음악이었다.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것이 정말 좋았다. 어느 날 친구에게 선물 받은 ‘휘트니 휴스턴’의 팝송 테이프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노래를 좋아했지만 잘하는 방법을 몰랐다. 어려운 형편 탓에 레슨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다. 노래대회에 나가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노래실력을 키워나갔다. 노래대회에서 받은 상품과 상금으로 용돈을 충당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다

그녀의 우려와는 달리 노래실력이 출중했다. 음악계의 반응이 좋았다. 대회에 나가기 전날이면 아주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케이블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채널V’에 출연하게 됐다. 그녀의 노래실력은 주목할 만 했다. 방송을 본 한 대형기획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날 이후 기획사에 들어가 가수의 꿈을 키웠다. 수많은 연습생 중에서 그녀가 단연 돋보였다. 초고속 승진을 했다.

두 달 만에 기획사로부터 전속계약서가 날아왔다. 연습생 동료들이 그녀를 부러워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 18세였다. 노래한다고 학교에 조퇴서를 제출할 때마다 뼈뺀 시선으로 바라보던 교사들이 기획사와 계약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우가 달라졌다.

대형기획사 연습생과 계약자는 상하관계가 뚜렷했다. 군대조직 같았다. 그녀가 가진 고유의 특색과 발성법, 외모를 확립시키려 했다. 어린 나이에 사회를 접하면서 심적 부담감이 더해 갔다. 한계가 찾아왔다.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대중가요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가수의 꿈을 버리고, 기획사를 박차고 나왔다.

음악은 계속했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양재 온누리교회 빅콰이어 집회에서 특송하는 지미선 자매.

음악과에 입학해 음악에 전념했다. 친구와 함께 출전한 ‘200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한 차례 연예계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 이후 악플(악성댓글)에 시달렸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상대팀이 더 잘했는데 그녀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이유였다. 그녀와 함께 출전한 친구가 가사를 틀리는 실수를 했는데도 대상을 수상했다며 네티즌들의 거침없는 공격이 이어졌다. 한 언론사가 그녀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는 기사를 낼 정도로 이슈가 됐다. 그녀는 1년 반 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 어두운 동굴에서 사는 것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다.

“기뻐할 곳도 없었어요. 대학가요제가 끝나고 방구석에 처 박혀 컴퓨터 앞에서만 지냈어요. 누군가 제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속삭이

는 것만 같았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녀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음악을 향한 마음의 문도 굳게 닫혔다.

CCM 가수의 길을 걷게 되다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 사정을 보다 못한 친구가 그녀를 양재 온누리교회로 데려왔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말씀도 모르고, 찬송도 몰랐지만 주일설교를 들으면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나오리라”(욥 23:10).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난날의 불순물

을 끄집어내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 제 발로 대학부 허브공동체를 찾았다. 새신자로 등록하고, 세례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장이 그녀에게 제주도 아웃리치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수중에는 15만 원뿐이었다. 일부 금액만 내고 제주도 아웃리치에 가게 됐다. 초신자였던 그녀에게 아웃리치는 생소했지만 새로운 훈련의 장이었다. 제주도 아웃리치에서 특송할 사람이 필요했다. 찬양을 전혀 모르던 그녀가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배워 특송을 했는데 그날 이후 CCM 가수 길을 걷게 되었다.

2010년에는 한 전도사가 ‘굿송(Good Song)’이라는 앨범 작업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에게 작사·작곡을 부탁하고, 몇 차례 고심 끝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만들게 됐다. 그녀는 찬양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작은 기적들을 경험했다. ‘싸이월드’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실시간 차트에 찬양 할렐루야가 오르기도 했다. 2012년에는 케이블 방송 Mnet ‘슈퍼스타K4’에서 박다빈이라는 출연자가 그녀의 찬양 ‘할렐루야’를 불러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CCM을 부른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 일을 계기로 원곡자 지미선 자매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녀는 양재 온누리교회 새신자열린예배에서 7년째 콰이어를 섬기고 있다. 6년 전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해 동창 백성현 형제에게 부탁했다. 흔쾌히 응해줬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반주를 위해서 매주 양재 열린새신자예배에 참석했다. 그 일을 계기로 그와 그녀는 6년 동안 사랑을 키웠다. 지난해 8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웨딩마치를 올렸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매니저이자, 찬양 디렉터이자, 반주자가 됐다.

그녀는 콰이어를 섬기면서 다른 활동도 하고 있다. 찬양집회, 간증집회, 청소년 수련회 등에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노래를 하고 있다. 새 앨범도 구상하고 있다. 더 진지하게 찬양을 하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다. 그녀의 꿈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다.

“주의 뜻을 전하는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때문이죠.”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8~18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을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치 축구선수들에게 “골키퍼 외에는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 나 자신이 신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첫 계명을 “나 스스로도 신이 되려 하지 마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면서 생겼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도 아닙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섬김, 찬양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중요한 기본원칙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어떤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깊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 왜 낙심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성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절망, 교만과 잘못된 성취감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진

리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생기는 영적인 교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귀 기울이고, 새기려는 마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지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어라!”

만약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치유 받은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으면 담대하게 선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 받은 기적에는 두 종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없지만 고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말씀 없는 기적의 위험성

오늘 본문은 기적 이후 사건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불가능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의 통로가 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11~13절).

이 지역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신과 헤르메스신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내려왔는데 영접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늙은 농부 부부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제우스신과 헤르메스신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이 살던 초라한 오두막을 금지봉과 대리석 신전으로 바꿔주고, 그들을 신전의 사제들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는 참나무와 보리수나무로 변했습니다. 신들을 냉대하고 홀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징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면서 믿고 있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제우스신의 제사장을 부르고 황소, 화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랐습니다. 그 지역 방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서 경배하고, 황소와 예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큰 잘못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적의 위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적을 자신들의 세계관이나 전설, 신화로 해석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기적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배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부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변화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할지를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행 14:3).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은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습니다”(14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숭배하려는 순간 옷을 찢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 사람들이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자신들을 신처럼 숭배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이 됩니다. 매우 짧은 순간에 내려져야 할 결정과 태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 자신들에게 돌려질 때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핍박할 때 옷을 찢습니다.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때로는 숭배하려고 할 때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믿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된 것도,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된 것도, 아름다운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입니다.

〈13면에 계속〉

어머니는 행복의 근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기

4. 바로 가르치기_크리스천과 자녀교육

자아정체감 형성 ...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 키운다
기다려주고, 동지가 되고, 더불어 사는 것 가르쳐야



김도일 교수

(온누리교회 협력목사,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



자녀교육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가장 곤욕스럽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적지 않은 교사, 부모,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도 하고, 다양한 교육 주제에 대하여 글을 써왔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가끔 “자녀교육 이렇게 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 부럽기 한이 없다. 자녀교육은 이론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주제이고, 필자는 자녀교육을 잘해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세간에 잘 알려진 글인데, 자녀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떠올렸다.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남루한 복장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묵직하고 늙은 바이올린 하나를 내밀며 부탁했다.

“이 바이올린을 5달러에 사지 않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요.”

악기점 주인 벤츠씨는 불쌍한 나그네를 돕는 셈치고 5달러를 건네주었다. 중년의 남자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한 후 총총히 사라졌다. 벤츠씨는 바이올린의 활을 당겨 보았다.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덕지덕지 붙은 먼지를 털어내고 속을 들여다보니 다음과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1704년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가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다. 벤츠씨는 급히 나그네를 찾았으나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그 바이올린은 10만 달러를 호가하는 최고의 명품이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5달러짜리 인생으로 비하하며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세월이 지나 자녀들이 다 크고 보니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미안한 일은 그들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10만 달러가 넘는 비싼 바이올린을 알아보지 못하고 5달러와 바꿔버린 바이올린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녀교육을 논하기 전에 부모교육을 먼저 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개 자녀교육을 패런팅(Parenting)이라고 한다. 패런팅이란 ‘부모 되기’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고,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문제의 핵심 ‘자아정체성 혼란’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뮤지컬로도 유명하고, 영화로 만들어진 ‘장발장’에서 장발장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것을 안 상황에서 자기가 물건을 훔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숨기고 살면서 선한 일을 계속할지를 고민했다. 장발장이 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최근 뉴스에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잔혹 범죄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른바 ‘SNU병’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SNU병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취약한 심리적 증상들을 말한다. 늘 선두를 달리며, 경쟁에 시달려온 학생들이 조금만 뒤처져도 견딜 수 없는 우울감, 좌절감, 실패감 등 심리적 질병을 앓고, 그로 인해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꾀대를 잃어버린 증상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앞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인 우리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속사람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현대 사회학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안토니 기든스 교수는 저서 〈현대성과 자아정체성(Modernity and Self-Identity)〉에서 후기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아정체성이라고 말했다. 현대인들이 자아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첫째, 현대는 탈(脫)전통적 질서의 시대다. 전통이 제시하는 외적 기준이 현대의 다원적 가치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생활세계의 다원화 문제다. 현대에 이르러 삶의 다양한 국면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서 다원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노동시간의 공간이 여가시간의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그 예다.

셋째, 권위 부재의 시대다. 젊은이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가치가 실종된 사회다.

넷째,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이 직접경험을 지배하는 시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수많은 다양성 속에서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을 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이 먼저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행운아다. 모세처럼 재수가 좋은 사람이 없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바로 구원받았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 당대 최고의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것만이 아니다. 모친의 젖과 사랑을 먹으며 자랐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본주의 교육도 받았다. 그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교육을 동시에 받으며 성장했다. 오늘날 신앙인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헤매게 됐다. 아마도 그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시달린 것 같다. 히브리 사람들을 부리는 애굽의 왕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이에서 방황했던 것 같다. 이런 추측은 그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드러났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숨’이라고 지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숨’이

아버지는 영원한 선생님

라고 지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시 동네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있었다. 게르숨은 ‘이방에서 객이 되다’는 뜻이다. 모세가 단순히 타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신세를 한탄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다. 매일 장인의 양 몇 마리를 몰고 호렙산(황량한 땅, 버려진 땅)에 오르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대답한 내용이다. 모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모친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웠지만, 궁전에서서는 인본주의 중심의 교육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그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부모의 신앙적 가치관을 온전히 확립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자녀들이 과거에 유행하던 팝송 제목처럼 두 연인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는(Torn Between Two Lovers)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다.

자아정체성 = 내가 보는 나

그렇다면 자아정체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보는 나’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인식을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감이다.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아정체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는 주로 사춘기다. 자아정체감 형성의 출발은 부모와의 이별(separation)에 있다. 부모에게 순종적이던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뜻을 거스르기도 한다. 부모보다 친구를 좋아하고, 자기만의 비밀을 갖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한다. 부모들이 이러한 현상을 섭섭해 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가 ‘나’를 찾아가는 여로에 들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사춘기에 흔들리고,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긍정적으로 기다려줘야 한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저항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의 <불편해도 괜찮아>에 나오는 지혜다. 그는 ‘지랄 총량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속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미안하지만 아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제 맛이 나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지금 가족 중 누군가가 속을 썩으면 ‘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지랄(삶에 대한 저항, 일탈 등등)’로 보고 수용하라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종종 느끼는 불가항력적인 느낌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말고,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세도 80여 년의 세월을 방황했지만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체감을 확실하게 갖게 됐다. 우리 자녀들도 방황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인생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최후의 보루

둘째, 안전한 동지가 되어 줘야 한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려고 할 때, 그 아기가 장차 살아야 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한다. 세상은 참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곳인 것 같은데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아기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두 명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낸다. 한 명의 천사는 네가 지치고, 외로울 때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 품에 안아줄 것이고,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 너를 위로하고 격려해줄 것이다. 천사의 이름은 엄마다. 또 한 천사는 네가 가야할 길의 이정표를 제시해줄 것이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깨우쳐 줄 것이며,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이다. 천사의 이름은 바로 선생님이 다.”

행복은 어머니 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생긴다. 어머니야말로 행복의 근원이다. 또한 행복은 인생을 지혜롭게 인도해주는 영원한 선생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허락하신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근본,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대상을 허락하셨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사랑이다.

자녀가 부모를 거칠게 대하고, 힘들게 하는 시간이 있어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다. 자녀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라도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해서다.

부모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의 최후의 보루이다. 가장 안전한 동지다. 부모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안전한 동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다.

셋째,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하루 평균 207.5분을 스마트폰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자녀들(YTN 2016.2.14)은 폭력과 선정적 콘텐츠로 인해 심령이 망가지고 있다. 또한 남을 짓밟고 거짓말을 일삼을지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아나 중심의 삶을 영위해도 좋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던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의 종착역은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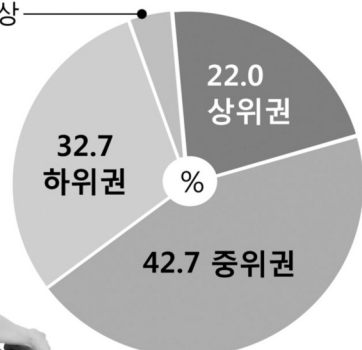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눅 10:27)는 것이다.

여기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적 정체감이 형성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경쟁보다 협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고, 여러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교와 놀이가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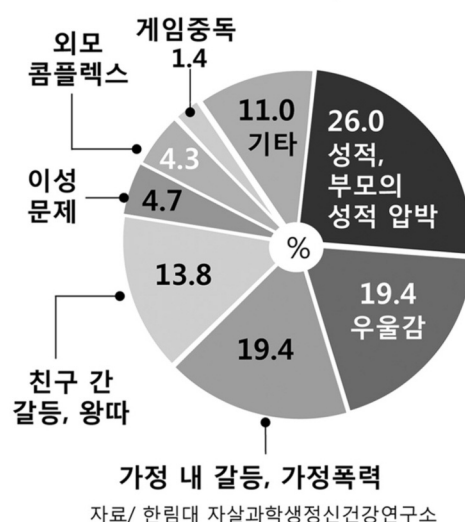
기본이 제대로 서 있으면 삶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는다 해도 나름대로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물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귀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자살 학생의 성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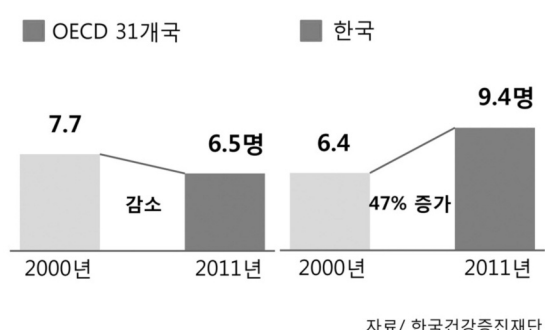
2014~2015년 상반기 기준
2.6 미상



자살 학생의 평소 고민 내용



아동청소년(10~24세) 자살률



“가난한 명곡교회를 도읍시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주인공은 4명의 자녀를 입양해 9명의 대가족을 꾸린 명곡교회 양동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명곡리 마을 초입, 열 살 남짓한 남자 아이 두 명이 대나무로 칼싸움을 하고 있다. 그 아이들에게 명곡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저기 회색 건물이 명곡교회예요, 우리 집이예요.”

이 아이들은 명곡교회 양동훈 목사의 넷째 찬영(11세)이와 다섯째 태영(8세)이다. 아이들을 따라 명곡교회에 갔다. 그런데 공사현장이다.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찾아 볼 수 없다. 곳곳에 건축자재가 쌓여있었다. 건물 지반이 내려앉아 교회를 새로 건축 중이라고 했다. 공사 현장 한쪽에 널려있는 빨래가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양동훈 목사 가족은 15평(49㎡) 남짓 되는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 그 컨테이너가 사택이자 임시 교회다. 그 좁은 곳에서 9명이 부대끼며 살고 있다.

부산, 울산, 안동 거쳐 구미 명곡교회로

양牧사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결혼했다. 2006년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개척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작은 구멍가게도 열었다. 그렇다고 팍팍한 살림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더 어려워졌다.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닮고 싶었기 때문이다. 친자녀가 세 명이나 있었지만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양牧사는 입양이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을 입양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궁핍한 시기였어요. 통장에 십만 원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입양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입양을 하려면 200만원 상당의 입양비를 내야했다. 십만 원도 없던 양牧사는 동기 목사에게 돈을 빌려 입양비를 냈다. 그렇게 처음 입양한 아이가 넷째 찬영이다. 찬영이를 키우면서 다섯째 태영이도 입양했다.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차도 팔고, 아침에는 공장,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다. 구멍가게는 사모가 운영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와 입양을 멈추고

교회 시설 후원, 꿀 구매, 아웃리치



명곡교회 양동훈 목사 가족.

싶지 않았다.

2011년 양牧사 가족은 출산장려 지원이 많은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사했다. 다섯째 아이부터 매달 100만원씩 2년간 지원해줬다. 안동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었다. 안동으로 이사를 하는 동시에 여섯째 인영이를 입양했다. 부임할 교회도 찾지 못한 때였다.

어느 날 밤 인영이가 발작을 일으켰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양牧사와 첫째 호영이가 사과 밭에서 일하고 받은 품삯으로 병원비를 마련했다. 인영이의 병명은 ‘영아연축’이라는 희귀성난치질환이었다. 영아연축은 영유아에게 간질(뇌전증)을 일으키고, 합병증으로 정신지체가 생기는 위험한 병이다. 다행히 인영이의 병세가 많이 좋아졌다.

안동에서 보낸 1년은 병과 가난과의 싸움이였다. 양牧사를 받아주는 교회도 없었다. 자녀가 많은 목사는 사례비를 많이 줘야하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양牧사는 네 번째 입양을 준비했다. 2012년 막내 해영이를 입양했다. 목회할 교회도 생겼다. 그 교회가 바로 명곡교회다. 양牧사와 가족들은 부산, 울산, 안동을 거쳐 구미에 터전을 마련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아이들 덕분에

양牧사는 지금도 2012년 4월 명곡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를 잊을 수 없다. 양牧사 부임 당시 성도가 단 한 명이었다. 교회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강대상에 거미줄이 가득했고, 멀쩡한 창문이 거의 없었다. 바닥에는 유리조각이 즐비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입양을 허락하셨고, 농촌교회와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해 명곡교회

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노회에서는 명곡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었다. 양牧사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 교회를 청소하고, 수리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 주민들을 섬겼다. 농사일을 도왔고, 경조사도 빠짐없이 챙겼다.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다. 4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명곡교회 성도가 6명으로 늘었다. 명곡교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 임직을 받은 성도도 나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민들도 양牧사를 환영한다.

명곡교회는 지난해부터 교회건축을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벽이 기울고, 지반이 내려앉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교회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시급하게 교회를 건축해야 했다. 지난해 초 어느 독지가가 2천만 원, 일산 총정교회가 교회건축에 쓰라며 3천만 원을 헌금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명곡교회의 딱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 약 7천만 원의 헌금이 더 모였다. 교회 건축공사를 맡은 건축가도 “부족한 대금은 얼마든지 기다려 주겠다”며 편의를 봐줬다. 양牧사는 지금 걱정이 없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목회는 자신 있었지만,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래도 자녀들이 잘 자라 주었다. 호영(23세), 주영(22세), 진영(18세)이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 아이들은 도시에 나갈 생각이 없다. 평생 명곡리에서 가족들과 살고 싶어 한다.

큰아들 호영이는 중장비 면허를 취득한 준비된 농부다. 양牧사와 함께 양봉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특수 작물도 키워보고, 유기농 양계장도 운영하고 싶어한다. 둘째 주영이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주영이는 명곡리에 고아들이 생활하는 그룹

홈을 세우는 꿈을 갖고 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삶은 고단하지만 아이들이 있어 양牧사는 매일이 즐겁다. 양牧사는 다섯 번째 입양도 준비하고 있다.

명곡교회 이렇게 돕자

온누리교회가 명곡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미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명곡교회에 매달 1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명곡교회로 아웃리치도 다녀왔다. 우리도 동참하면 정말 좋겠다. 명곡교회 이렇게 돕자.

양牧사와 큰 아들 호영이가 생산할 ‘아기사랑꿀’을 구매하자. 아기사랑꿀 판매 수익은 명곡교회와 ‘입양선교회’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입양선교회는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입양을 독려하는 선교회로 오는 5월 양牧사가 발족할 예정이다.

교회 시설을 후원하자. 공사비 부담으로 교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배당에 의자도 놓지 않도록 설계했다. 냉난방시설과 피아노도 없다.

농번기에 아웃리치를 가자. 마을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양牧사가 입양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양牧사는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고 했다. 입양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것이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가정은 명곡교회에 며칠간 머물면서 양牧사와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입양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후원문의: 양재 농어촌선교팀장

임신빈 010-9085-1677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탈동성애영화 그 못 다한 이야기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거짓은 진리로, 음란은 거룩함으로 싸워야

“동성애가 단순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일까? 한 번 쯤 던져 볼 만한 질문이다. 아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닌 영적인 문제다. 마귀는 동성애를 통해 거짓과 음란의 영을 전파한다. 심각한 문제는 마귀가 현혹하는 대상이 어린이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미혹시켜 그 세대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

지난 5일 탈동성애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김광진 감독이 서빙고 금요 회복예배에서 영화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동성애자는 무엇이고 성소수자는 무엇인가? 성소수자(sexual minority)는 이성애자와 다른 성적 취향이나 성적체제, 신체 등을 지닌 사람들을 말한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동물성애자와 메카노필리아(기계성애자), 네크로필리아(시체성애자), 소아성애자 등 20여 가지가 있다. 여기서 성소수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동성애의 문이 다른 성소수자들의 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성적취향을 인정받으면 다른 성소수자들도 평등을 주장할 것이다. 실제로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평등성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계속 탄원서를 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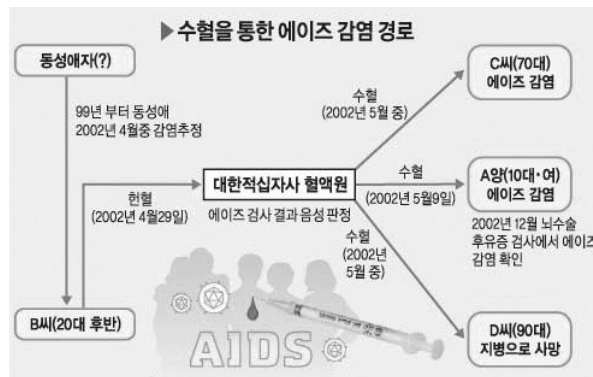
동성애자 한 명이 만든 비극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자신이 암호 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예약하고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결과는 본인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헌혈 복수극'을 벌였다. 1993년에는 국내 최초로 에이즈 수직감염이 발생했다. 수직감염은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 임신부(34세)가 제왕절개 분만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의 피였다.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2세)는 장출혈로 사망했다. 60대 부부가 에이즈 감염을 비판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1991년 6월 심장판막증 수술 중 수혈을 받은 정모씨(61세)가 에이즈에 감염됐다. 정모씨는 부인 이모씨(57세)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동맥을 끊었으나 일찍 발견되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 부인 이모씨가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녀는 정신적 고통을 받다 그해 7월 자살했다. 정모씨도 1993년 3월 입원치료 중 이던 병원에서 투신자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추적결과 동성애자가 에이즈 감염 이후 헌혈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후에도 수십 명의 동성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에 대한 복수였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서 13살부터 24살까지 남자 에이즈 환자의 감염경로를 조사했는데 동성과의 성적관계가 가장 높았다. 13살부터 19살까지 92.8%, 20세부터 24세까지 90.8%였다. 동성 간 성적인 관계(특히 남성)가



▲ 탈동성애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포스터

◀ 실제 동성애자의 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 사례.

*출처: 동아일보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발병과 상관없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콘돔 사용을 제안한다. 그러나 콘돔은 15%의 실패율을 갖고 있다. 아무리 잘 활용해도 2%는 실패한다. 이 말은 6개월 뒤에 걸릴 것이 2년 뒤에 걸린다는 것이다. 콘돔은 에이즈 예방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우간다는 한때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다. 에이즈 환자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없었다. 계속 늘어날 뿐이었다. 우간다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였다. 당시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성경적인 성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성관계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60%였던 에이즈 감염률이 4%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드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환자가 10% 부담하지만 그마저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된다. 2003년 에이즈 환자가 2,024명이었고 이로 인해 지출한 사회적 비용이 7,821억 원이었다. 2013년에는 에이

즈 환자가 약 10,000명으로 5배 증가했다. 사회적 비용은 약 4조원에 달한다. 2015년도에는 5조원이 넘었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동성애를 미화한 TV 드라마, 만화, 소설 등이 동성애자를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 특히 분별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갖기 쉽다. 동성애자 앱(APP)도 있다. 동성애자 앱(APP)은 'jack'd, GRINDR, BoyAhoy, DIGSO'가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 앱(APP)들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신체를 앱(APP)에 올리면 다른 동성애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연결하는 방식이다. jack'd 앱(APP)을 여의도에 서 켜보니 반경 5km안에 100명이, 이태원에서는 400명이 검색됐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돌아봐야 한다.

마귀의 목표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다.

엘리스 베일리는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라고 알려져 있다. 약 70년 전 그가 악마에게 직접 계시 받은 몇 가지 전략이 있다. 그 중 핵심전략이 '성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를 공략하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이용한 동성애 마케팅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 행복해진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가짜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이유로 회개도 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숨겨진 동성애의 끝을 보여줘야 된다. 진실이 한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그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자신들의 성적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본질을 흐트리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 거짓은 진리로, 음란은 거룩함으로 싸워야 한다. 영의 세계를 알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동성애자들은 도와줘야 한다. 그들에게 상담과 영적충전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상담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같다. 동성애자들이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상담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 상담과 치료는 염안섭 원장(수동연 세요양병원)에게 받으면 된다. 염 원장은 한국 최초 에이즈 전문 의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동성애자들을 상담했다. 동성애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금은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박진권 선교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정리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염안섭 원장: 031-594-8007
johnyeom@hanmail.net
박진권 선교사: 010-3032-4806
david7485@naver.com
영상제작 후원계좌: 135-910006-71805
하나은행, 김광진 fnnfilm
동성애 실제 강의: 김광진 감독 010-5860-7074
fnnfilm7073@gmail.com

“하나님을 사랑하고,

1. 사회선교의 신학적 이해 2. 1다락방 1사역

3월 5일 목양대회에서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1다락방 1사역’이 선포될 예정이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나 기관을 지속적으로 돕는 사회참여 사역이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안성맞춤 사역이 시작된다. 이에 발맞춰 본지에서는 2주에 걸쳐 사회선교의 신학적 이해, 1다락방 1사역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윈터캠프.

그동안 선교는 미시적(微視的) 시각으로만 이해돼왔다. 선교사나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중심으로 이해했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선교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 아니라 선교사와 교회가 됐다. 선교사와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고, 성령님은 돕는 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사역은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돕는 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선택권과 결재권이 성령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사역이 되면 위험하다. 선교사와 교회는 성령님께 쓰임 받는 대상이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둘째,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다. 그동안 선교를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이해했다.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라고 생각했다. 선교하면 반사적으로 해외를 연상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선교라고 이해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행 1:8)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 없다. 예루살렘이든 땅 끝이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선교지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모두 선교다.

선교는 미시적 관점을 넘어서서 거시적(巨視的)으로 이해해야 한다.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교의 주체와 객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1952년 빌링겐국제선교대회 이후 독일의 신학자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 대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했다. 이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로서 행하시는 것이고, 선교사나 교회는 객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성령님은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그 땅과 백성들을 위한 구원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미지의 땅으로 보내셨지만, 당신이 먼저 그곳에 가 계신 것과 같은 것이다.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이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으셔서 병 고침, 축귀, 말씀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역을 감당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땅놓으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선교적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선교적이어야 한다. 공동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선교적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은 모두 선교지다. 그곳이 국내이든 국외든, 도시건 시골이건 상관없다.

예수님은 선교를 미시적, 거시적 관점으로 행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시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죽음이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온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눅 22:42) 행하실 것을 기꺼이 제안하실 수 있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미시적, 거시적 관점으로 이해했다. 그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롬 15:17-18)이라고 고백했다. 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셨고, 자신은 객체였다.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이해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선교는 장소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교회와 선교사들은 성령님의 사역에 선

교사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는 말씀사역, 삶을 통한 사역, 나눔 사역

선교는 국내에서 행하든, 국외에서 행하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말씀사역이다. 이것은 성숙한 선교사나 교회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개인 전도나 평신도 리더 훈련, 신학교 사역, 목회자 훈련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대외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였다(딤후 4:2).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함으로써(골 4:3-4) 언제든지 복음을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였다.

둘째, 삶을 통한 사역이다. 이것은 구원을 얻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혹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훌륭한 선교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 때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마 5:13-16)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또한 중요한 선교다.

셋째, 나눔 사역이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사회는 강자와 약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도시와 농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될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없는 자들을, 높은 자들을 통해서 낮은 자들을 섬기게 하심으로써 균형을 잡으신다. 여기에 사회선교의 자리가 있다.

사회선교는 관계, 나눔, 구원

사회선교는 거시적 선교 안에서 미시적으로 진행되는 선교다. 사회선교는 스스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돌보아 주며, 때로는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사회선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선교는 성육신적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동안 교회는 죄인들을 초청해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사회선교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기보다 그들을 찾아간다는 뜻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회선교는 찾아가 만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교회가 되게 한다.

둘째, 사회선교는 사회참여적이다. 그동안 복음주의 교회들은 해방신학자들로부터 사회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주의 교회는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선다. 해방신학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려고 했다면, 복음주의 교회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구조 안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관계를 맺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Pole2공동체의 사랑애풀 나눔.



양재공화사역팀의 남대문 5가 크리스마스 블레스.

이웃을 사랑하라”

사회선교는 복음의 핵심 준행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사회책임, 사회통합, 사회봉사 영역으로 나눠 이웃사랑 실천

다. 그래서 사회 참여적이다. 이미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선교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한다. 예수님은 소외계층, 약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가까이하심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병 고침, 귀신 쫓음, 군중을 먹이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그 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곧 선교다.

사회선교의 방식은 관계, 나눔, 구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선교는 관계 맺기를 우선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선교는 기존의 구제 중심의 방식을 탈피하고, 먼저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삶을 나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다.

또한 사회선교는 나누기를 실천한다. 이것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 목표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재정, 재능, 정신, 문화, 시간, 공간, 지식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행 2:42-47).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 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있는 자들이 소유를 팔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다. 중국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사회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을 준행하는 것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이다.

또 하나의 사명 사회선교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 시대적 요청 혹은 부름이다.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항일 독립운동과 사회개혁에 참여하였고, 6.25전쟁 후에는 빈곤과 고아 돌봄 사역을, 군사 독재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였다. 이와 같은 교회의 역할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에 이르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대(對)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교회는 시대의 부름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흥의 주역이었던 1세대 목회자들의 세대교체 과정 혹은 그 이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 이후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들과 그늘 아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했다. 노숙자, 미혼모, 한 부모 가정, 버려진 아이들, 고령화 현상, 독거노인, 조기 퇴직, 입양,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노인 문제, 청년실업, 청년 빚, 가출 청소년, 난민, 농어촌교회, 동성애, 탈북자 사역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우리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게 된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왔다. 예배, 양육, 해외 선교 등 많은 부분이 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어 왔다.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바로 사회선교다. 온누리교회가 사회의 모든 문

제를 끌어안고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을 더 충실하게 감당할 뿐 아니라, 사회의 그늘을 말아 섬겨야 한다. 하나님과 민족의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2014년 신설됐다. 그동안 집중해 왔던 해외선교와 더불어 힘없고 소외된 약자들을 돕는 사역이다. 사회책임, 사회통합, 사회봉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사역을 하고 있다.

사회책임 영역은 사회 속 제도적 혹은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고 교회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청년부 채해결방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일·하·세’(일터사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합 영역은 농어촌선교, 새사람사역, 다문화, 한터 등이 있다. 농어촌선교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돕는 사역이다. 새사람사역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재소자들에게 신앙교육과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역이다. 다문화사역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한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역이다. 미래함 공부방(탈북청소년 방과후 공부 및 성경공부 지원), 양재 하나공동체·강서 한터공동체(탈북민과 함께하는 예배공동체), 하나원사역(통일부 산하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예배를 지원하고,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한 정착을 돕는 사역)이 있다.

사회봉사 영역은 구제봉사, 나눔장터, 양재공활사역, 맘애크스, 제이홈, 아트비전, 사랑의줄잇기, 은빛날개 사역을 한다.

구제봉사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돌보고, 예수님과 함께 현실을 극복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1시부터 홀로어르신 가정방문봉사를 하고 있다. 나눔장터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매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수익금을 후원하는 사역이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빙고 선교관 지하1층에서 열리고 있다. 양재 공활사역은 매월 마지막 주일 러브미와 헌옷, <생명의 삶>을 수거한다. 쪽방촌 주민들로 구성된 남대문 5가 마을 예배 및 나눔도 매주 지원한다. 매월 셋째 토요일에는 영등포 마태교회의 노숙자 사역을 돕고 있다. 맘애크스는 미혼모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매주 목요일 구세군 두리홈과 두리마을에서, 매월 넷째 토요일에는 새롬이네집(동방아동복지회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제이홈(J Home)은 입양 가정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역이다. 입양의 실질적 과정과 사례, 위탁가정 프로그램 소개 등 입양 관심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은빛날개는 은퇴 후 사회적 필요가 있는 곳에서 자원봉사자 혹은 유급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인생 후반기 사역이다. 연 4회(3월, 6월, 9월, 11월)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아트비전은 예술 활동과 작품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 본부장)



맘애크스.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버지학교.



길공동체, 수원역 노숙인 밥퍼봉사.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영역	부서	문의(팀장)
사회책임	청년부채해결방안	윤호석 010-5151-9000
	일·하·세(일터사역)	김성주 010-3504-8394
	농어촌선교(서빙고, 양재)	(사)구자엽010-4286-0078
사회통합	새사람사역	(양)임신빈010-9085-1677
	다문화	백종신 010-3625-0266
	한터	예민수 010-3426-4038
사회봉사	구제봉사(서빙고)	(양재 하나)장석인010-7130-3469
	나눔장터	(강서 한터)김의석 010-8636-5863
	공활사역(양재)	(미래함)민경일010-5476-1406
	맘애크스	(하나원)유주석 010-2004-1022
	제이홈	조영봉 010-4316-3885
	아트비전	추선희 010-3767-5851
	사랑의 줄잇기	이기명 010-5415-9399
은빛날개	은빛날개	차윤복 010-3173-6753
		오창화 010-2049-8210
		황해성 010-4876-2354
		최승철 010-9380-4337
		김기산 010-4227-0181

교사, 부모,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서빙고와 양재서 매월 셋째 주일

주일학교 교사와 차세대들이 만나 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분 밖에 되지 않는다. 길어야 20분 정도 다. 차세대들은 주일학교 교사와 눈을 자주 마주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그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부족 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 대지역본부가 교사, 부모, 차세대가 함 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었다. 매월 셋째 주일을 교사, 부모, 차세대가 함께 예 배드리는 날로 정했다. 그 첫 예배를 지난 21일 서빙고 본당에서 오전9시 와 오후 2시에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도 있 었다.

노회대목사는 "신앙유산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고, 차세대들의 영성은 부 모의 관심과 참여로 성장한다"면서



차세대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다.

"교사, 부모, 차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 배가 그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자녀 4명을 둔 이지영 성도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예배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서

빙고 초등2부 최혜진 교사는 "교회와 다음세대가 통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느낀 예배였다"면서 "앞으로 차세대 교사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 겠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온누리교회, 뉴저지 필그림교회와 MOU 체결

3월 4일 오후 3시 서빙고 순형홀서 체결식

온누리교회와 뉴저지 필그림교회가 일본선교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MOU체결식은 3월 4일 오후 3시 서빙 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열린다.

뉴저지 필그림교회측은 MOU 체결 을 앞두고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일본선교를 배우고, 참여해 뜻을 함께

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000 선교본부 김홍주목사는 "뉴저지 필그 림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고 밝혔다.

MOU가 체결되면 온누리교회는 필 그림교회에 러브스나타, CGNTV, 두란 노서원 사역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뉴저지 필그림교회는 미국장로교 (PSUSA) 동부한미노회에 속한 교회 다. 이스턴 크리스천 스쿨(Eastern Christian School)과 협력하고 있다.

성도 2,1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다. 가정공동체, 사역공동체, 교육공동체, 섬김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는 선교하 는 교회다.

/ 김미림 기자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3월 9일 개강

원더캠퍼스, 비전의 사람 과정 신설

대학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Bible Academy)가 3월 9일 개강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대학청년들에게 성숙, 헌 신, 영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양 재, 이룸센터에서 진행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필수과정, 영적 성장을 위한 선택 과정,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캠퍼스 과 정으로 운영된다. 필수과정은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XEE(X-generation Evangelism Explosion), 큐티베이지, 일대일 양육자 반이다. 선택과정은 그리스도인의 교

제와 결혼, 비전의 사람, 갈라디아서다. 비전의 사람 과정에는 비전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다. 강 사는 이주연 목사(산마루 교회 담임), 하정만 목사(꿈이있는교회 담임), 문에 란 대표(G&M글로벌문화재단) 등이 메 시지를 전한다.

캠퍼스 과정은 '원더캠퍼스(Win the Campus)' 과목이 있다. 이번엔 신설됐 다.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과정이다. 동자, 관악, 신촌, 대학로, 광진구 권역으 로 나누어 진행된다.

축하합니다

2월 세례자

■서빙고	신승아 140717	정하라 150224	채 원 151006	윤정원 140307	홍민지 140320	이진모 590220	SNS
김명호 550708	신용욱 장영정	정찬웅 전유현	채경석 이지은	윤하돈 유영희	홍통치 박선영	최용석 691221	공 휘 870104
김사진 330215	이수민 151024	최하민 140422	김서연 140805	윤하늘 140330	> 입교	황경목 590416	정지민 831223
김경자 511119	이경준 정혜림	최철승 한상찬	김찬수 남혜정	윤용범 하정아	고윤아 840525	허효창 550211	최윤경 801025
김찬영 970923	이하민 140321		김선강 140609	윤현민 140902	박은비 920425	> 입교	이다희 931010
심재혁 490827	이경준 정혜림		김갑중 김경희	윤현상 김수진			최명선 881031
윤소영 731006	이연희 140214	김명자 670322	김시원 140421	정레이 140805	■특별한초대	길	최하영 891230
> 유아	이종영 장하연	조소현 850220	김장환 김상리	정일옥 광 샘	구 현 651029	최현일 791002	
김나현 151016	이지호 140514	최지현 811130	김지호 140702	조해도 140805	박은경 680813		
김영식 정재은	이선호 신지혜	> 유아	김도균 장인선	조준호 김은영	김선근 630315	■하늘대학부	CH630
노 겸 141121	임주빈 140622	김다엘 150117	김지훈 150311	최나단 150516	임정환 700721	> 입교	하지훈 890628
노재준 이상은	임두완 권경인	김태식 이윤선	김태주 홍수화	최승봉 박하연	성일훈 721106	전지우 950328	
안하을 141024	정다은 140614	신주안 140814	안시현 140517	최서윤 140327	박해진 720522	원은혜 971118	
안지현 최선미	정영석 임혜미	신동희 조 선	안대일 황지연	최재현 신지현	이영우 590501	윤승재 931013	

윤안민 장로, 김국용 장로 소천

윤안민 장로와 김국용 장로가 소천했다.

윤안민 장로는 지병으로 지난 22일 소천했다. 향년 77세. 지난 24일 삼성 의료원 영결식장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형진 목사(화성 호산나교회), 자녀 윤석재, 윤석원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윤석 한, 자부 오정은, 조재영, 한지선이 있다.

김국용 장로는 7년간의 병상생활 끝에 지난 24일 소천했다. 향년 74세. 당 회서기, 당회위원, 일대일 제자양육에 헌신했었다. 천국환송예배는 지난 26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서 드렸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구선 국 권사, 자녀 김덕준, 김정준 선교 사, 김태신, 자부 김나영, 황상숙, 사위 최현웅이 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3월 26일 개강

콤 등이 강의한다.

2000선교 본부에서 제6기 온누리전 문인선교학교(Onnuri Professional Mission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서는 온누 리교회 교회론, 온누리 선교, 제자도 및 영성, 문화와 세계관, 전문인 선교 이론 및 현황, 재정관, 리더십, 선교적 삶 등 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송동호 목 사(IBA사무총장), Jeffrey Lee장로(르완 다 마이크로크레딧), 강동진 목사(보나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 이 메일(billyson@nate.com)로 하면 된다. 회비는 20만 원. 올해부터 온누리전문 인선교학교가 탈바꿈했다. 주관 부서 가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2000선교로 변경됐다. 24주 과정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12주 동안 진행된다. 비즈니스 선 교와 전문인 자비량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가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일 반 성도들도 참가할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모 집

은빛날개세미나

은빛날개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은빛날개세미나는 은퇴이후 삶을 준비하 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서빙 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30대 이상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1만원.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문의: 02-3215-3436, 010-5336-5820

온사랑합창단 단원

온사랑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만 13세부터 만 3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누 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여자 10명, 남자 5명을 모집한다. 찬송가, CCM, 동요, 가곡 등 자유곡 1곡을 선정해 오디션을 보면 된다. 오디션에 합격하면 서빙고 온누리 교회 신관 4층 누리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연습 을 한다. 그룹레슨과 일대일 개인레슨도 받는다.

병원전도팀 가나중창단원

병원 전도팀에서 가나중창단원을 모집한다. 나이제한 없이 여자면 누구나 지 원 가능하다. 매주 금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홀에서 오전 10시에 연습한 다. 매월 둘째주에는 아산병원, 넷째주에는 삼성병원에서 특송을 삼긴다.

문의: 010-9192-6382

온누리호스피스학교

온누리 호스피스 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호스피스학교는 3월 9일부터 5 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호스피스 전문교 수 15명(이(6)과목) 오후 12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강의한다. 3월 9일까지 아이 스쿨(www.onnuri.org)이나 주일 서빙고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통합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비는 7만원.

■선교사파송 명단

정피터/손사라	남수단	데이비드	동아시아A국
배바울/이예스터	미국	데이비드/예스터	아프리카 지역
데이비드/베라	서남아시아 지역	김재경/박지혜	일본
데이비드/사라	동아시아B국	김사무엘/예스터	콩고
전진혜	미국	제프리	동아시아A국
벤자민	남아시아B국		

제1088호 | 2016년 2월 28일(주일)

■ 유아세례간증



할머니의 기도를 본받아

/ 아이: 이연희 부: 이종영, 모: 장화연

나는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 어린 시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로 시작된 할머니의 기도는 곡조처럼 높낮이가 있어 새벽마다 잠을 깨우는 알람 같았다. 다시 할머니의 기도가 시작되는 밤에는 자장가가 되어주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금요일예배를 다녔고, 엄마의 품 안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나는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 당연한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인지 당시에는 몰랐다.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

대학생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듬해 할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 할머니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 덕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 그 상태가 평생 같 것 같았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다. 달콤해야 할 신혼 때였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이 없었던 남편을 만나 크리스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괴로웠다. 날마다 눈물 흘리며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스스로 반성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도 했다. 남편의 사업실패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어

려워졌다. 관계는 더 나빠졌다.

큰아이를 낳고 둘째를 기다렸지만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니의 소개로 온누리교회 와이즈마더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불완전한 남편과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나를 괴롭혔다. 저녁예배에 참석해 절박한 마음으로 울면서 한 나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감동을 주셨다. 며칠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딸이 매우 기뻐했다. 아무도 몰래 동생이 생기게 해달라고 3년 동안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했다.

둘째는 2014년 밸런타인데이에 출산했다. 언니를 닮아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 여전히 우리 가정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 보여도 이 어둠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는 태초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이어졌던 할머니의 기도를 본받아 오늘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 기고



입양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임승연 성도(일산공동체)

나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육아를 하고 있는 평범한 엄마다. 슬하에 아들 윤(9세)과 입양한 딸 민하(5세)를 두고 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낳은 우리 부부에게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 있었다. 나도 결혼생활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입양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첫째가 서너 살 될 무렵, 둘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씀을 듣고, QT를 할 때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양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도 입양에 대한 적용으로 이어졌다.

입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입양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셨다. 입양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생겼다. 그 이후 일사천리로 입양을 진행했다. 그렇게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딸 민하를 만나게 되었다.

민하를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입양 가족의 친구, 가족, 선생님, 이웃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입양서클’이라고 지칭한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그 거대한 입양서클 안에 속해 있다. 입양서클에 속한 사람들에게 입양가족이라는 것을 밝히면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 있다. 따뜻한 격려도 있지만 불쾌함을 느낄 때도 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려와 불편한 감정이 섞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입양 가족도 다른 가정과 다르지 않다. 서로 사랑하며 가끔은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는 평범한 가족이다. 주위 사람들이 입양 의사를 밝히며 의논해온다면 드라마 속 이야기나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입양 괴담(?)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단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축하해주면 된다. 입양에 대한 기쁨과 함께 존재하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입양 가족의 주변인으로서 입양 가족들을 지원해주고, 입양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동참한다면 입양 가족들에게 더없이 큰 힘과 기쁨이 될 것이다.

■ 본부 89기 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 강은아 사모

남편에게 강좌를 소개해주려고 두란노바 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오른 쪽 구석에 있는 광고를 봤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개설되는 어머니학교 광고였다. 온누리교회에서 사모어머니학교가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대학시절 목요일마다 온누리교회에 들러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는 나에게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그 온누리교회에서 사모어머니학교가 열린다니 반가웠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닌 나를 위해 홈페이지를 보게 하신 것 같았다.

어머니학교 개강 첫날.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찬양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어머니, 아내로 살다 이제야 어머니학교에 왔어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고, 나의 고백이 되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홈페이지를 두리번거릴 때도 기도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6조가 되었다.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신 향기님을 만났다. 담임사모님이신 향기님은 어머니학교의 선배이실 뿐 아니라

선배 사모로서도 마음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다. 6조 자매님들과 함께 웃고, 울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학교 때 강의를 통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사모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강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삶을 나눠주시는 분들을 통해 서로 말없는 지지와 격려를 받고 또 보내는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매주 숙제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왜 사랑스러운지 이유를 썼다. 발도 씻어주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수시로 컴퓨터에 앉아 숙제를 하는 나를 보며 “어머니학교 숙제구나? 이번에는 누구한테 편지 써?”라고 물었다. 다 쓰면 보여 달라고 관심을 보였다. 마음속 생각들을 말이 아닌 글로 쓸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또 얼굴을 보고는 하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들도 표현할 수 있어 좋았다.

나를 어머니학교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 IBS 서빙고 목요반 31기 수료 간증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 반상섭 집사(동작공동체)

신앙생활 한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설교를 통해 또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다.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키비(KIB)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러다 BEE 코리아에서 말씀사역을 하면서 키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직장 때문에 등록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1월 퇴직하면서 IBS(Israel Bible Study) 세미나에 참가신청을 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의 신앙이 반쪽짜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 너무 기뻐했다. 그동안 유대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이 많았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나에게

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동영상과 교재 나눔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현재 진행형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BEE 세미나를 인도할 때 로마서 11장 17~20절 말씀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 말씀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IBS세미나 첫 시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두 번째 시간 축복의 근원인 이스라엘을 통해 그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한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알리아 사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IBS 세미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박덕현 장로(남양주B공동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기도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참 많다. 왜 그럴까. 아마도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닌가 보다. 열두 제자들조차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즉시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면서 말이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 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마 6:6-7).

예전에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생각 없이 주절거리지 말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동안 그랬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 왔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반복되고 있었다.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를 찾고, 중언부언 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줄 알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똥똥해도 조용히 찾아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들 선뜻 내주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록 못나고, 말썽쟁이라 해도 내 자식에게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다.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실까. 모든 것을 계확하시고 예비하신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격정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 상대가 이웃집 아저씨인지, 아버지께 말씀 드리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야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웃집 아저씨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없다.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아버지께 구해야 일용할 양식(삶의 모든 필수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얻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권사칼럼 김희숙 권사(서초B공동체)

난지도와 남대문 5가 쪽방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힌 곳이 있다. 바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다. 그곳은 서울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었다. 난지도에 월드컵경기장과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모두가 꺼려하던 곳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남대문 5가 쪽방촌도 난지도와 같다. 불우한 이웃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에 꿈과 희망이 싹트고 있다.

나는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의 초대로 남대문 5가 쪽방촌을 방문했다. 청년들은 이미 6개월 동안 매주 쪽방촌을 방문하고 있었다. 쪽방촌 주민들과 꽤 친해진 모습이 었다. 나도 청년들과 같이 심방을 했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냉기와 악취가 진동했다. 주민들의 형편이 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렇게 쪽방촌 사역을 시작했다. 벌써 6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에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만나는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런데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대답들이 의외였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에 다녔습니다”, “나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다시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반가워하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갔니? 나는 잃어버

린 양을 찾으러 왔단다. 난지도 알지? 나는 이곳을 난지도처럼 변하게 할 거야 함께 하자.”

그날 이후 남대문 5가 쪽방촌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남대문 5가 쪽방촌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다. 처음부터 사역팀과 함께 예배를 드린 형제가 돈을 모아 다세대 주택을 얻어 쪽방촌을 떠났다. 그 형제는 남대문 5가 쪽방촌사역팀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그 형제는 “매일을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농부가 된 형제도 있다. 어느 장로님의 도움으로 영흥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형제는 복분자, 고추,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앓고 있던 천식도 씻은 듯이 나았다. 돈도 착실히 모으고 있다. 다른 쪽방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본 쪽방촌 주민들이 변하고 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대문 쪽방촌은 난지도 같은 곳이었다. 불쾌하고 누구도 찾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쪽방촌 주민들이 남대문 쪽방촌으로 오기를 원한다. 희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다. 예수바 보행전을 써가는 현장 남대문 5가 쪽방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문의: 이형기 팀장(010-5273-5739)



신앙에세이 김영배 목사(서초C공동체)

비움과 채움

비움과 채움은 기독교 영성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비움과 채움은 인간의 내면여행에서 일어난다. 비움은 채움을 위한 과정이다.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만, 지저분하면 깨끗이 청소해야만 쓸 수 있다. 주인은 그릇의 용도에 따라 채운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련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마태복음 15장에 ‘정결논쟁’이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종교지도자들이 책망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내면에서 비워져야 할 것들이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마 15:19-20).

내면에 비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인 말씀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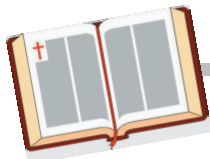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대조되는 악덕(롬 1:29-31, 갈 5:19, 고전 6:9-10)들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나온 악덕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혼의 적이다. 영적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한다. 중세 영성가들도 7대 죄를 멀리했다. 교만,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시기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7대 죄를 ‘죽음에 이르는 죄’로 여기면서 그 항목들을 비워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쳤다.

내면을 비워나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부정의 길(apophatic way)과 긍정의 길(kataphatic way)이 있다. 부정의 길은 하나님과 비공유적 속성을 말한다. 아무리 하나님께 지음 받은 인간일지라도 타락하면 하나님과 조화할 수 없는 비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유사성을 제거할 때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간다. 예를 들면 7대 죄 중에 탐욕이나 탐식, 정욕과 같은 유혹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찾아오기 때문에 일상에서 비움으로 영적성숙이 이뤄진다. 기독교의 회심이 매우 급박한 은총의 사건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말씀 안에서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뤄진다. 기독교 영성은 비움에서 채움으로 이어진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에 채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바움은 성도의 부르심을 어떤 행위나 열매로 보지 않고, 그보다 먼저 존재 자체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바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딤후 4:5)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갈 것인가? 만약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존재의 심연에 채워진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영적체험은 우리에게 삶의 평강과 안정감, 깊은 안식과 쉼을 가져다준다. 영적인 성장은 채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죄악된 것을 비우는 부정의 길과 달리 긍정의 길은 채우는 과정이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어둠과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비움과 채움의 영성에는 역동의 원리가 있다. 많이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많이 비우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태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미문에 있던 이들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행 3:12).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기본원칙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일말이라도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의 태도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15~17절).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바울의 창조적 융통성을 보여줍니다.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변화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율법을,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율법 없이,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내용으로, 구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연이 어떻게 생성되었겠습니까.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과 단비를 주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절망과 미신, 우상과 신화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제시의 방법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전하

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으로부터 시작하고,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르고, 셋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룬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은 자연을 보았지만 이제는 자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이 땅에서 고침을 받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대사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옷을 찢어야 할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냉대 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고, 칭찬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한 태도를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과학 그 마지막 이야기



이은일 장로
(고려대의학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교회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면 다시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이 나오고 흠칫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과학적 발견과 성경의 가르침이 모순될 수는 없다. 과학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연구해서 밝히는 것이고, 성경은 그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발견에는 한계가 있으며 성경 해석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의 발견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성경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2세기부터 내려온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부인한 것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년 이상 내려온 천동설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질서정연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별자리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태양계의 중심을 지구가 아닌 태양으로 전제하고 별자리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단순한 구조로 원형들을 이루는 것을 발견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발견한 지동설을 발표하기를 꺼려했지만, 루터파 과학자들과 목회자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프로테스탄트 과학자들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과학이론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 사이에 천동설과 지동설 싸움은 치열하였다. 갈릴레오가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을 발견하여 지동설을 지지하자 이런 주장을 철회하도록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다. 종교 권력이 과학적 발견을 탄압한 것은 회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지동설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교황에게 지동설이 반 성경적, 반 과학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도 아는 과학적 상식이다. 그런데 태양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을 열심히 돌고 있다. 시편 19편 6절 말씀에 ‘태양이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처럼 운행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이야기하지 ‘지구가 서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을 천동설을 주장하는 말쑥으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태양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사실이다.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은 상상하는 것처럼 정지해 있는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달리고 있는 태양 주변을 열심히 돌면서 함께 달리고 있다. 태양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알면 피조세계의 질서를 살피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의 유전자 전부를 분석한 게놈(Genome)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인간의 유전자에는 진화과정을 통해 누적된 쓰레기 DNA가 95%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나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었다. 실제로 DNA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2013년 과학자들은 인간 DNA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복잡한 기능으로 가득차서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고백을 네이처(Nature)지에 기고하였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조차도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발표를 한 것이다. 과학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과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기도하며 연구하고 있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종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I, 3층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다문화과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일본어 중급반

기간: 3/8-6/28매주 화요일13:00~15:00

장소: 선교관1층 Acts29홀

자격: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자

문의: 한행자 교사(010-7738-3604)

부천 온누리 김포 M센터(캄보디아예

배공동체)

모집: 한글교사 및 봉사자 모집(김포 양곡)

일시: 토요일 16:30~21:00

주일 10:30~17:00

문의: 이경복 팀장(010-5251-7882)

꿈아이를이터 모집

기간: 3월 30일(수)부터 10주간

시간: 매주 수요일 10:40~13:0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회비: 15만원(임금 선착순)

문의: 김경희 코치(010-8877-3584)

교사모집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자료제작

문의: 김종호 전도사(010-3327-1712)

금요회복예배 자매 심어 모임

시간: 매주 금요일 19:00(연습 17:30)

문의: 이덕주 전도사(010-4640-0029)

성령수련회 스테프모집

일시: 년 4회 토-일 수련회(1회 4/23-24)

시작 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기도모임

장소: 수련회-예담원

기도모임-서빙고 acts29홀

문의: 이승영 총무(010-4318-9978)

43기 젊은부부학교

기간: 4월 2일~4월 23일(매주 토)

자격: 결혼기간 12년 이하

강의: 하나님의 가정원리, 부부대화,

성격분석 외

비용: 35만원(3/26일까지 입금시 30만원)

신청: '온누리 젊은부부학교' 네이버 카페

온누리 아이스쿨

문의: 김대형 총무(010-9750-5907)

아름다운 동행(부부코칭 프로그램)

대상: 온누리교회 부부

일정: 3월 19일~5월 7일 오후 3시~6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정원: 선착순 24가정(임금기준)

문의: 윤병국 팀장(010-5255-7363)

뉴저지 이스턴 크리스천 스쿨(ECS)

입학 설명회

일시: 3월 5일 토요일 11시

장소: 순령홀

대상: 초등~고등 학부모 40명 선착순

문의: 02-3215-3216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를(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순장사관학교 29기

기간: 3월 13일~5월 29일

시간: 매주 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양재 드림홀

인원: 80명

문의: 윤여빈 팀장 (010-8865-8469),

정호영 간사(02-570-7447)

양재 화요기도학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지구촌 반사회

다문화 선교 프로젝트

우리의 이웃 이주민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 1년을 달려온 <지구촌 반사회>

이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감하고 다문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CGNTV

<지구촌 반사회> 다시보기
www.cgntv.net

토크 콘서트

힐링유
Healing YOU

“리얼 힐링의 모든 것!”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자

시간 색소폰니스트 시간 남성중창단
오후 7시 루카스 오후 8시 인치엘로

일시 2월 29일(월) 오후 7시
장소 상암동 제일라이트홀
문의 02-3275-9533
페이스북
www.facebook.com/healingu

Tv 프로그램

▷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3/4(금) 오후 8시 10분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저자 마이클 프로스트를 통해 배우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입니다.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2/29(월) 오전 11시 FNC 한성호 대표
'성공과 실패의 갈래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
-3/1(화) 오전 11시 동강교회 이충석 목사
'머슴 살다 목사가 되다'.

▷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3/1(화) 오전 11시 30분
탈북가수 최금실과 어머니 강은비 집사 출연.
'탈북가수, 꿈과 희망을 노래하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간 편 성 표

2/28(주일)	2/29(월)	3/1(화)	3/2(수)	3/3(목)	3/4(금)	3/5(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사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차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신학자들의 이슈&토크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세브블레싱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사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20:1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요나서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선 프린스의 은혜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9:0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0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